

Daily Auto Check

2022. 8. 26 (Fri)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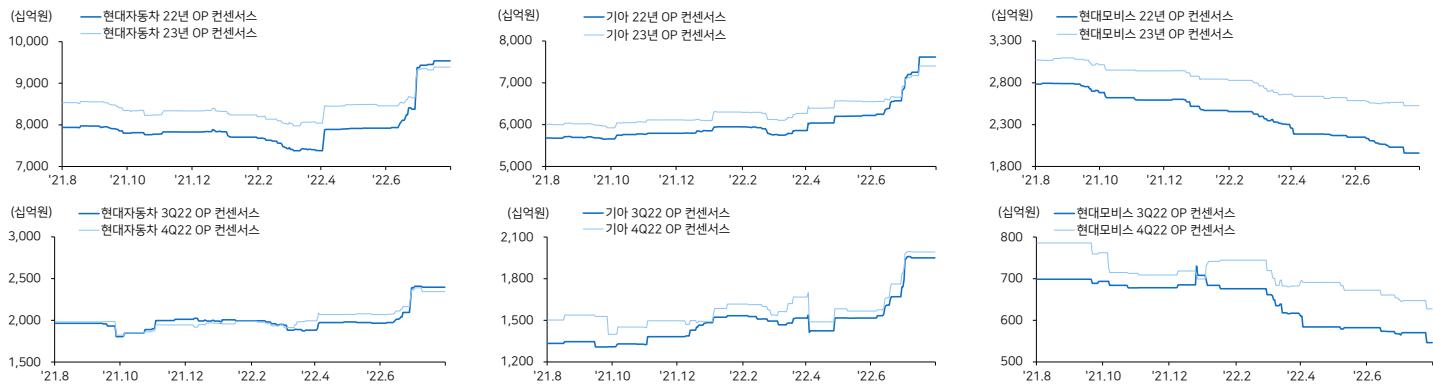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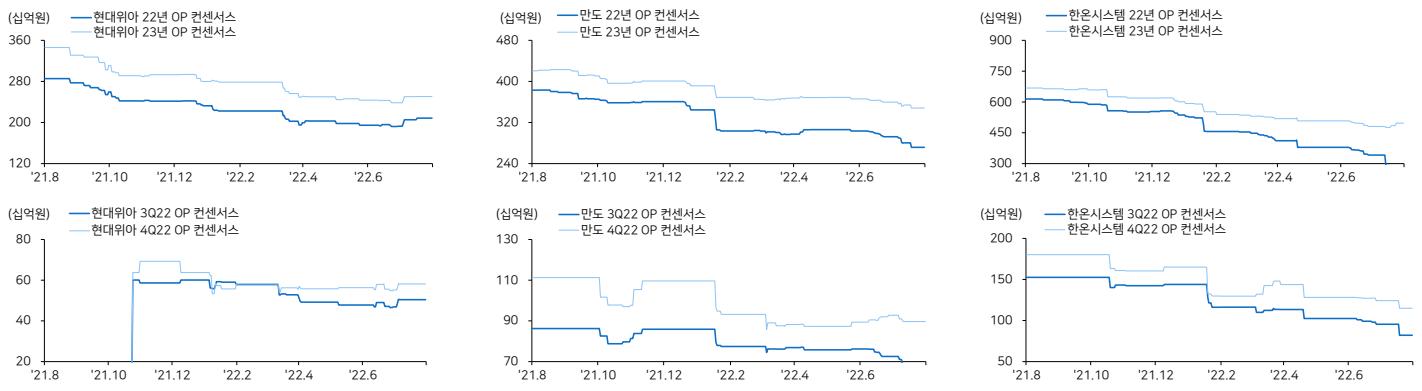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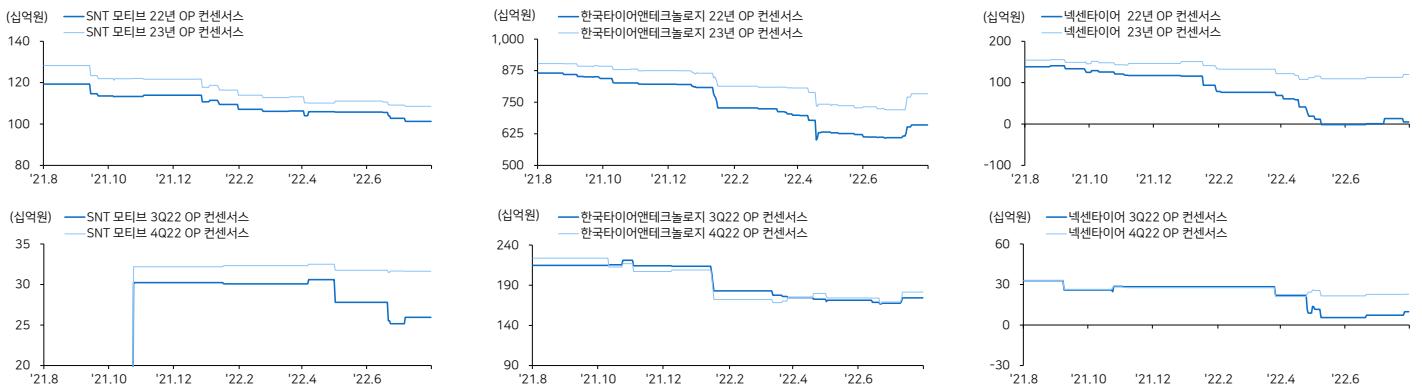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올산에 전기차 신공장 설립... 2025년 양산(머니S)

현대자동차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을 올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에 지을 계획, 약 2조원을 투자하여 2023년 착공, 2025년 원공하여 양산한다는 계획. EV차종 대형화/자동화/신공장 레이아웃 등을 고려한 부지 선정.
<https://bit.ly/3KocT2x>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연간 10만대 수출 차질(조선일보)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RIA(법인) 통과로 인한 보조금 탈락으로 격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연간 한국산 전기차 10만대의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을 전망. 또 국내 13,000여 자동차 부품사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파악.
<https://bit.ly/3dLWQzo>

NVDA Q2 earnings fueled by automotive growth, announces new model plans with Nio (electrek)

Nvidia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였으나 EV 수요 증가로 인해 자동차 부문은 긍정적. CFO는 자동차 사업부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이번 분기에는 Nvidia가 Nio, Li Auto 및 Jidu 등 Nvidia 텁제 모델 출시 계획을 발표.

<https://bit.ly/3QPUX3y>

U.S. consumers borrow at record levels as car prices surge (Reuters)

신용 모니터링 회사인 Experian은 북미 지역 소비자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신차와 트럭의 가격 급등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2분기에 신차 대출에 대한 평균 월 상환액이 66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5% 증가함.
<https://reut.rs/3AKAurc>

현대차, 글로벌 커넥티드카 혁신성 '5위→8위' 주총 (THE GURU)

독일 CAM(Center of Automotive Management)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혁신성이 뒤처지는 중. 테슬라와 포드, 제너럴 모터스(GM) 등에 밀려 올해 글로벌 커넥티드카 혁신 순위가 전년 보다 3계단 하락.
<https://bit.ly/3COW2t5>

에너지 플랫폼 대전환, '금속의 시대' 온다 (한경비즈니스)

21세기 에너지 대전환을 맞이하여 '그린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광물 자원이 핵심 원자재로 부상. 미·중·무역 분쟁이 기술 때 권 전쟁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21세기 석유라고 할 수 있는 광물 자원의 확보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분석.
<https://bit.ly/3AnKNA6>

Zeekr reportedly considering IPO in US or Hong Kong (CNEV Post)

중국 자동차업체 Geely의 프리미엄 EV 브랜드 Zeekr가 IPO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Zeekr는 지난 10월부터 최초 인도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3년내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지난 자금조달에서의 기업가치는 약 90억 달러로 평가받음.
<https://bit.ly/3QRM75g>

Mercedes EV production launches in Alabama (Automotive News)

Mercedes-Benz는 EQS SUV 생산을 멤플리에마주 공장에서 시작했다고 발표. 해당 공장의 EV 생산능력은 연간 10만대 수준. 포드, GM, VW, 볼보 등 업체가 모두 미국 공장에서의 EV 생산 계획을 발표하는 중.
<https://bit.ly/3wworu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